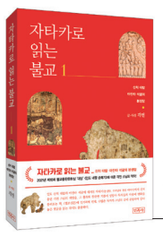
부처님 본생담서 나의 바탕을 만나다



자타카로 읽는 불교1
각전 지음
2만3000원 / 민족사

산치대탑 부조, 아잔타 석굴 벽화 속
부처님 본생담 25편 선별, 쉽게 해설
難行을 能行으로 변화시키는 힘 확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각전 스님과 도반스님, 신도들이 함께 떠난 인도 성지 순례. 뒤로 녹야원의 다메크 스투파가 보인다.

고전(古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가 확인된다. 항상 곁에 두고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담겨서다. 불교의 고전 중의 고전은 바로 '부처님 자타카(본생담)' 이다.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담은 '자타카' 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이야기' 나 '아라비안나이트' 부터 영웅 서사시인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 심지어는 셰익스피어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산치 대탑, 아잔타 석굴, 바르후트 스투파, 간다라 미술뿐만 아니라 중국의 키질 석굴, 둔황 석굴, 보로부두르 대탑에도 자타카의 이야기가 남아있다.

2021년 제18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의 저자 각전 스님은 구도의 연장선상에서 다녀온 인도 네팔 순례에서 부처님의 성지와 아잔타 석굴, 엘로라 석굴, 산치 대탑 등을 답사했다.

각전 스님의 전작 〈인도 네팔 순례기〉가 부처님이 살아생전 계셨던 곳에서의 이야기라면 최근 발간한 〈자타카로 읽는 불교 1〉은 난행(難行, 어려운 행)을 능행(能行, 능히 행함)하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이다.

본생담은 540여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중 산치-아잔타 본생담은 총 25편이다. 각전 스님은 산치 대탑에 부조로 조각되고 아잔타 석굴에 벽화로 그려진 본생담만을 뽑아 니그로다미가, 마뚜뽀사까, 찻단따, 마하수따소마 본생담 등을 책에 실었다.

부처님 전생이야기는 알게 모르게 접하게 된다. 비둘기를 살리기 위해 허벅지 살을 도려내 준 부처님, 자신이 구해준 궁수에게 배신을 당하고도 오히려 그를 위해 살아날 길을 알려주는 황금 사슴이었을 적의 부처님 등 코끼리, 원숭이, 백조, 왕, 궁수 등으로 태어났던 다양한 모습의 전생 이야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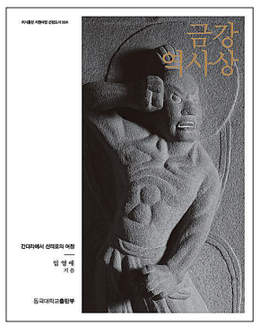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냥 부처가 된 것이 아닌 반복적인 생과 사의 윤회 속에서 전생의 자기희생의 복덕 덕분에 부처가 됐음을 보여준다. 결국 우리의 현세(現世)의 모습은 전생의 결과이고, 내세(來世)의 모습은 현세의 결과인 것이다. 본생담은 무엇보다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난행을 능행으로 이끄는 보살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행동을 보여준다.

본생담은 나와는 상관없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찬찬히 살피면 나 자신의 마음 밑바닥의 이야기임을 느끼게 된다.

부처님의 본생담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악에 대항하며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악(惡)이 스스로 느껴 선(善)이 될 때까지, 내 몸이 사라질 때까지 악을 끌어안아 폭풍우가 아닌 따스한 햇살로 포근히 감싸 안는 것, 이것이 본생담이 일깨우는 진정한 의미이다. 갈등과 혐오가 넘쳐나는 시대, 맞서 싸우지 않고 자비를 통해 악인이 스스로 뉘우칠 때까지 시간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마음임을 본생담은 전하고 있다.

제20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금강역사상'

'올해의 불서10' 선정 · 발표
신설 한길번역상엔 '석씨요람'
오는 10월 31일 시상식 개최



제20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임영애 동국대 문화재학과 교수의 〈금강역사상-간다라에서 신라로의 여정〉(이하 〈금강역사상〉)이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는 10월 10일 '2023년 올해의 불서 10 및 제20회 불교출판문화상' 수상작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금강역사상〉(임영애, 동국대출판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랜 시간 금강역사상을 애정을 갖고 연구했던 임영애 교수가 발간한 〈금강역사상〉은 간다라에서 중앙아시아, 중국과 한반도까지의 금강역사상을 총망라한 연구서다.

이 연구서는 1~2세기 간다라부터 9세기 신라까지, 각 시기마다 또 지역마다 금강역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학술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금강역사의 모든 것을 담은 한 권의 책' 이라 지칭할 만하다.

우수상에는 〈공양간의 수행자들〉(구미래, 담앤북스)과 〈불교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마성, 민족사)가 수상했다. 붓다북학술상에는 〈조론연구 조론오가해〉(조병활 역주, 장경각)가 보덕전법상에는 〈불유교경〉(영화 저 · 상욱 외 역, 어의운하)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입선작에는 △〈꽃이 된 아이〉(박상재 저 · 국은오 그림, 단비어린이)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원제, 불광) △〈말로 말을 버린다〉(이민용, 모시는 사람들) △〈사소한 것은 없다〉(동은 · 진광, 모과나무) △〈통도사승가대학의 불교철학 강의〉(홍창성, 운주사)가 선정됐다.

올해 신설된 '한길번역상' 은 〈석씨요람(1,2)〉(석도성 저 · 김순미 역주, 운주사)이 수상했다. '한길번역상' 은 이미령 북칼럼니스트의 후원으로 고전 번역서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출판사와 역자에게 각각 100만원씩 시상한다.

제20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은 10월 31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리는 불교문화대전 폐막식에서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일생을 하루처럼 살아야 한다"



때로 반짝이고 때로 쓸쓸한
성전 지음
1만6800원 / 담앤북스

성전 스님의 마음은 아침 햇살을 닮았다. 누구나 두 팔만 벌려도 무한한 햇살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스님의 마음도 그렇다. 자연 아래 평등한 우리, 승속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을 헤쳐 나아가는 도반에게 전하는 속삭임이다.

불교계 대표 문장가이자 BBS불교방송에서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 를 통해 매일 수많은 청취자와 대화하고 위안을 전하는 성전 스님이 신작 〈때로 반짝이고 때로 쓸쓸한〉을 펴냈다. 어쩌면 매일같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스님이 굳이 펴낸 책. 하지만 목소리가 아닌 글로 전하는 사색과 사유의 열매는 방송의 그것과는 맛이 다르다. 용기이기도, 위로이기도 한 스님의 읊조림은 언제나 빛을 따라간다.

'꿈이 깨어지자 인생의 눈부심이 사라졌다. 초라한 나만 남았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꿈보다 먼저 있고 꿈보다 늦게까지 남아 있을 테니까. 눈부시지 않으면 어떠리. 또 초라한들 어떠리. 내일 나는 또 새벽별 보며 그 별빛과 함께 태어나리니. 그대여 나를 위해 꽃들까지도 춤추는 노래를 불러주지 않으려나.' –그래도 괜찮다 中에서–

빛을 노래하는 스님의 위로는 아침 햇살을 만나 하루를 보내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일주일을 그린다. 연꽃이 필 땐 일 년을 생각하며 앞으로 주어진 시간에서 인생을 짚어보는 성전 스님. 이처럼 스님의 글은 하루, 일주일, 일년, 끝으론 인생까지 시간이라는 흐름 속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자세를 담고 있다.

"시간의 가장 큰 성장은 하루다. 일생은 하루로 압축된다. 하루가 되는 일생.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하루처럼 살아야 한다. 하루가 남았다는 말은 초라하다. 하루가 되었다는 말은 결연하다. 하루와 일생은 똑같은 무게를 지닌다. 하루가 되는 일생 일생이 되는 하루." –일생을 하루처럼 中에서–

아침에 만족을 배우고, 한 주가 저무는 시간 앞에 고개를 숙이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 속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라는 물음이 든다면 이 책을 한번 펼쳐보자. 때로 반짝이고 때로 외로운 날들 앞에서 사랑이라는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성운 대사가 보인 배움의 길



다원화한 인생을 열다
성운 저 · 이승준 역
1만6000원 / 운주사

'대만의 스승' 이라 불리는 성운 대사가 지난 2월 5일 대만 불광산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인간불교' 의 기치를 내세운 성운 대사는 대만 가오슝에 불광산사를 창건한 이래 한평생 대만과 해외 각지에서 불교문화의 진흥과 교육, 자선사업 등에 온 힘을 기울여 온 명실상부한 이 시대의 일대종사로 존경받았다.

〈다원화한 인생을 열다〉는 성운 대사가 평생에 걸쳐 배우고 익힌 학습 과정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로 자상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성운대사 스스로는 겸허하게 평생 정규교육을 못 받았다고 하지만, 그의 학습 과정에서 드러난 풍부하고 빼어난 인생역정을 보면 마치 한 권의 인생 종합 교과서를 보는 듯하다.

책은 성운 대사의 자발적 학습(自學) 과정 이야기로 시작한다. 성운 대사는 평생 학교에 들어가 공부한 적이 없고, 따라서 초등학교 졸업장도 유치원 졸업장도 없지만 그것이 곧 공부와 배움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다. 이른바 "늙을 때까지 배움은 끝이 없다"는 말처럼, 어릴 적부터 '인생은 바로 배움의 과정' 이라 여기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자기학습(自我教育)' 의 여건을 만들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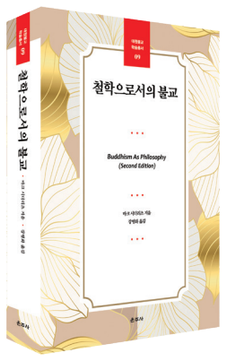
이에 성운 대사는 "사람은 일생 동안 외부에서 불어오는 온갖 비바람도 막아야 하지만, 자신의 계발에도 적극적이어야 하며, 마음속 에너지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후회 없이 인생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책에서는 대사가 '스스로 배우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예컨대 글쓰기, 강연하기, 독서회 등이 그것이다. 특히 독서회의 유익함을 적극 강조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이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성운 대사는 자기학습의 목적에 대해 지식 측면에서 남을 돕고, 도덕적으로 남을 감화하고, 실용 면에서 남에게 혜택을 베풀어서 궁극적으론 사회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전해져야 비로소 가치 있는 학습임을 강조한다. 불교 역시 본연의 홍법과 이생(利生)사업 외에도, 사회에서 문화 · 교육 · 자선 · 환경보호 등의 해야만 불교가 비로소 사찰에서 나와 사회로 들어갈 수 있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

신중일 기자

불교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대원불교학술총서



철학으로서의 불교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 대학의 철학과 교재! 불교의 철학 전통과 불교사상의 기본 교리를 흥미롭고 분석적으로 소개하였다.
마크 시더리츠 지음, 강병화 옮김 / 648쪽 / 38,0000원



스토아철학과 서양불교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와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인 스토아철학이 보여주는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과 상호 영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패트릭 어셔 지음, 이재석 옮김 / 152쪽 / 12,000원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
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문일수 지음 / 360쪽 / 25,000원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권으로 보여주는 한국불교의 역사!
한국불교통사
김경집 지음 / 392쪽 / 20,000원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리히 프롬과 불교
박찬국 지음 / 316쪽 / 20,000원



인류의 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새로운 실천 방향 제시!
활생문명으로 가는 길
김규칠 지음 / 368쪽 / 25,000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마음(心)과 의식(識)에 대한 통찰!
불교의 무의식
윌리엄 왈드론 지음, 안성두 옮김 / 456쪽 / 23,000원



백운 · 태고 · 나옹의 선어록에 대한 문예 미학적 접급!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전재강 지음 / 312쪽 / 20,000원



가장 뛰어난 제자 24인의 삶과 수행, 깨달음의 과정을 담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냐나뽀니까 장로 외 지음, 김충현 옮김 / 728쪽 / 40,000원



비구니 승가에 대한 차별이 과연 부처님의 본뜻이었을까?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
아날라요 지음, 김철 옮김 / 360쪽 / 20,000원



직접성과 즉각성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관점!
새로 보는 선불교
베르나르 포르 지음, 정천구 옮김 / 696쪽 / 4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